"나와 내춤과 이웃은 하나"

산문밖의 禪

1인창무극 명인 공옥진 씨

"눈물·웃음·恨 춤으로 익고 세상보는 눈도 익어"

공연수익 이웃에 회향…"학처럼 가볍게 날고파"

인간의 삶에서 눈물과 웃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를 가끔 이같은 질문에 휩싸이게 하는 예인(藝人)이 바로 1인창무극의 명인 공옥진보살(63)이다. 그녀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대학로 두레극장에서 또다시 질펀한 웃음과 가슴 도려내는 울음의 무대를 진설하고 있다.

작은 체구서 나오는 신명

그녀가 등장하면 공연장은 바다가 된다. 홀로 바지락 캐고 산버섯 따며 살아가는 영광 앞바다의 한 서린 파도 더미를 관객들에게 왈칵왈칵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때로는 배꼽잡는 웃음의 파도를 때로는 펑펑 쏟아지는 눈물의 파도를 그 작은 체구로 일으켜 세우는데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어떤 사람은 그 힘을 한 서린 여인의 삶이 토해내는 신명(神明)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명으로 들뜨다 못해 폭발해 버린 '끼'의 체광(體光)이라고도 한다.

둘 다 맞는 얘기다. 공옥진씨의 입담과 춤사위는 한과 신명과 끼로 얼기설기 얽어진 눈물과 웃음의 바다에서 용솟음치는 파도다.

"새삼스레 나 살아온 야그가 뭔 필요 있겄소. 사람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인디. 허나 나는 내가 감당하기에 오라지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혔응께 이렇게 춤이라도 춰야 살아 있는 맛을 느끼는 것 아니겄소."

오라지게도 무거웠던 그녀의 짐. 이제 그녀는 60년 이상을 짊어지고 온 그 무게를 자신의 몸보다 가볍게 간수하고 있다. 춤을 출 때마다 한 응큼씩 그 무게를 털어 내는 '마음공부'를 착실히 다져 온 까닭이다. 그 마음공부는 젊은시절 3년여의 절집 생활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현실을 현실인채로 부딪히며 삭혀 온 처절한 생존의 공부였다.

죽기 위해 물에 몸을 던져야 했고 살기 위해 다리 밑의 거지·장애인과 섞여 찬밥을 먹어야 했던 고단한 삶. 벙어리 동생과 곱사등이 조카딸의 억울하고 서러운 죽음을 온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한서린 목숨이었기에 공옥진씨는 지금 무대에서 춤을 출 수 밖에 없다. 그녀의 춤은 그녀의 한을 털어내는 공부다.

"애시당초 이 야속한 삶 자체가 공부란 생각은 못했제. 그저 하루하루 한 달두달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응께. 나이를 먹으며 내가 야무진 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여."

억척스레 삶의 여정을 걸어 온 촌아낙의 모양새를 그대로 갖추고 살아가는 공옥진씨는 가능하면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미 그것도 그녀의 속 공부 과정일 것이다. 공연에서 얻은 돈을 몽땅 털어 어려운 이웃에게 주어 버리는 마음 씀씀이가 사실은 그녀를 더 부자이게 한다는 것을 기나긴 한의 세월에서 깨달은 까닭이다. 영광군에 1억을 내놓고 장학회를 만들었고 또 최근에 받은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광고 출연료 7천만원도 몽땅 불우이웃돕기에 내놓았다.

그녀에게 이 일은 매우 사소한 일이 만들었다"는 설명이 가슴 아플 뿐이다.

그녀가 초창기 무대에서 속칭 '병신춤'을 선보였을때 장애인들에게 받은 항의는 빗발치던 몰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쓰러지더라도 무대에서

"그들의 한을 내가 대신 몸짓으로 이야기 한 것인데 정작 그들을 분노케 했으니 내가 이 짓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엉엉 울며 생각했었다"는 회고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서야 했다. 그대로 널부러져 죽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녀의 한은 너무나 깊었고 그녀의 끼는 너무나 뜨거웠던 것이다.

이제 공옥진씨는 그녀가 말하는 속공부로 인해 익을대로 익었다. 춤이 익었고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이 익었다. 그리고 그녀의 한도 익고익어 눈물과 웃음의 파도로 출렁이고 있다.

스스로 학이 되고 싶다는 공옥진씨.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미 그녀는 학이 되었다. 아버지 심봉사를 이별하고 인당수로 가는 심청이가 되기도 했고 당달봉사 애기봉사 꼽추봉사가 되기도 했다. 원숭이가 되었고 욕심 많은 놀부가 되었고 또 가난해서 복받은 흥부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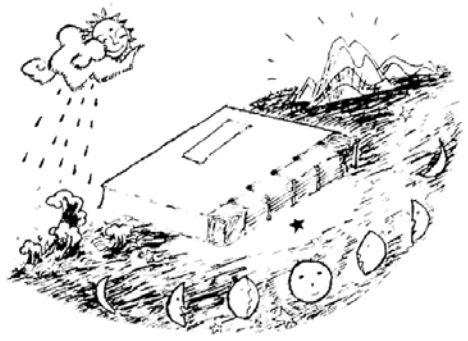
세상에 보여지는 그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공옥진씨는 이미 우리 시대의 슬픔 그 자체이기도 하고 희망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녀는 공연의 처음과 끝에 합장인사를 한다. "나와 내 춤과 당신 그리고 나와 당신의 웃음과 눈물은 모두 하나요"라며.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가는 공옥진씨는 지난해 가을 담석증으로 세차례의 수술을 받아 아직 몸이 성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익을 때로 익은 공옥진씨의 삶과 예능은 영광의 촌 마을에 그녀를 놓아두지 않았다.

"쓰러져 죽더래도 무대에서 죽어야제."

이 터지기 직전의 예기(藝氣)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사랑이 관객들에게 뭉클한 희망을 주고 있음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연태 기자



삽화·이기선

실상봐야 역사 바로 세운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⑤⑦

현정(顯正)

참회로 共業 녹일때 법계 청정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뛰어넘어야 하고, 건너가야 한다. 뛰어넘는 것은 초월이고, 건너감은 도피안이다. 도피안은 어디에 있는가. 반야심경 결구사에 있다. 결구사라기보다 결정주(決定呪)일 것이다. 모든 일의 완결미를 거두는 결정주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람은 미결사로서 일의 끝머리에 오고 마는 것이다. 완전치 못하고, 매듭이 교묘하지 못한 곳에서 마감을 하기에 뒤가 어지럽다.

그런데 심경의 결정주는 그렇지 않는듯 하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그곳은 깨침이 이룩되는 곳'이라 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어영부영 이것저것 온갖 무명삼독에 뒤엉켜 살고 있다. 무명삼독이 행복을 점지하는 현세적 결정주라고 착각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태우고 반란도 하지 않고 삼독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야단이다. 그 어지러움이 어째서 생기하였는가를 미리 짚어 보는 사람은 없다. 가라앉지 않는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났다면 일머리를 잡기전에 흐림과 어지러움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변통이 된 것이다. 중론 귀경게에 '생멸(生滅) 거래(去來) 단상(斷常) 일이(一異)' 이것이 적확하게 부정되고 그 부정의 상태에서 초월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모두가 사특한 생활사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모든 중생은 나고 죽고, 시간속에 가고 오고, 오래 있기도 하고 바로 사라지기도 하며, 또한 깊은 듯 하면서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나고 오고, 항상 하고 동일한 것을 좋아한다. 그 반면에 사라져 죽어가고, 끊어져 달라지면 싫어한다. 그러나 이 '생멸(生滅) 거래(去來) 단상(斷常) 일이(一異)'의 팔부(八不)가 항상 공생하고 공멸하는 법계에 있는 것이다. 눈 뜨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그 사물이 있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착각을 일으켜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고집한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전도되어 없다고 한다.

시공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있는 것이다. 시공속에는 역사가 이룩된다. 시간과 공간속에 행업된 과보는 실상 그대로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짧은 육안적 시각이다. 우주의 눈으로 보면 일체사가 지나간 시공속에 역사적 현존재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쉬운 말이다. 일체 중생이 살아온 과거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공생이 함께 참회하여야 한다. 한두 사람만 밝게 되고 밝게 된다고 하여 이 법계가 청정히 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업이 모두 공제(共濟)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능소(能所)가 체루비읍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우주에는 무수한 생명이 있다. 이 생명 하나하나에 정직성이 없다면 우주는 혼돈하게 된다. 혼돈의 그것이 자기만이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니 시공이 어지럽게 된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시공을 맑힐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시공을 맑히면서 살아왔는가 반문하여 보아야 한다. 과거 시공에 더러운 때를 남겼다면 그 때를 남기게 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규명된 시간부터 이제의 시공을 청정히 하여야 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오늘 목욕하여 청결히 하는 사람은 지금의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다. 어제 그제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벗겨내는 것이다. 지금의 때는 바로 씻겨질 수 있으나 어제의 때는 조금 불리어 놓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일도 매한가지다. 과거를 바르게 투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공속에 이룩된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전과자의 명상이 필요하다. 죄업자의 명상은 어찌보면 시공을 건너뛰는 묘한 마음을 가질런지 모른다. 이 묘한 마음이 되도록 지금의 역사가 정직으로 염력되어야 한다. 삿된 것을 부시고 바른 것을 세우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은 능동자의 자기 참회가 거울처럼 투영되어야 한다. 짐짓 남만 참회하라고 닦금질하는 것은 요란한 빈 수레가 지나갈 뿐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건너가야 하고, 건너야만 한다. 저 역사의 시공속에서 한점 유루의 때가 없는 순후한 깨침이 있는 곳으로 건너 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름을 세우는 길이다. 심경의 결정주를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쳐 외워 행동하는 것만이 정법을 세우는 길이다. 새해 바로세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1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 제일서림 : 424-0801 대전 문경서적 : 252-855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1996학년도 제5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정진·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1. 모집과정 : 법사과정·오종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1월 5일 ~ 3월 1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733-1959·737-5305
FAX : (02) 720-1836